

휴-口으로부터 칸트에이르기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C. 칸트의因果問題

一. 範疇의先驗的演繹

吾人은이제批判哲學即칸트哲學의源泉인純粹理性批判에로進行하려고한다. 우리
가여게서取扱하라는思想은思想過程의全歷史에서가장重要한一過程인것은말할
것도없다. 哲學의進路가全혀窮塞하야新光名을鶴首而待할切實한時代에果然思
想過程은一轉機를劃하야遂히그通路는나타난것이다. 생각해봄에獨逸에在한合
理論者도英國에在한經驗論者도共히學問에對한根本的合理的證明은勿論하고新
知識을獲得하는當然의哲學을完成簡明하게說明하는데에도失敗하였다. 그缺課
哲學은어느方面을向하든 矛盾撞着이 充滿하였을뿐만아니라무슨新進行에의用
意며또는그方法에의閃光조차없었다. 이때에다달리칸트는決然히學問과日常生活
의根本的假定을證明하지안으면안될事實또完全한新進行의方法을發見하지안
으면안될事實을悟來하였다. 即그것은數學的으로正確하고確實하다고看做하는
것을證明할수가잇는方法이오 참으로綜合的의先天的原理의體系에서直接으로모
든人間經驗에關한安全한哲學을建設하는것임은周知하는바이다. 그래서이批判
哲學의總集成과批判思想의全結晶을總特大成하야世上에出現한것이곧칸트가前
後十年이나되는長久한歲月을虛費하며眞理의探究에는老軀의疲勞도亡而不順하
는態度로써苦心의苦心로畢성한것理即千八百八十一年의 『純粹理性批判』 의
出現이라는事實도吾人이熟知하는바이다.

그런데칸트는因果律의證明을 『原則의分析』 이란데서完全히論證하였지마는
此因果律의證明은範疇의先驗的演繹을例常하여서만成立의道程이充分히理解되
는것임으로써吾人은먼저이演繹을略述할必要가생긴다. 그러면演繹의主되는目
的은무엇인가그것은即可能的經驗의原則인範疇를說明하는것이다. 그래서이目
的은範疇가事物의現象과必然的的關係에서는事實이알어지는境遇에到達되는것이
다. 範疇를通하야感性的의表象인空間時間의形式이形式的의直觀으로變할때에는範

疇은空間時間을介하여야必然的으로對象에適用되는것이다. 河鼓인가하면現象의形式인空間時間밑에서經驗의全對象은成立하고連하여形式的直觀인空間時間이範疇를通하여야規定되는때에經驗對象은또한必然으로範疇밑에서게되는것임으로써다. 經驗의直觀은形式的直觀의特殊的規定이다. 그러므로形式的直觀은範疇를通하여야規定되고뺀아서此範疇를通하여야또한經驗의直觀도現象의對象에對한表象으로規定되는것이다. 뺀아서經驗一般의原理인範疇의說明은直觀形式과그範疇와의必然的結合을證明하는것의課題인任務다. 그래서認識種類로서의直觀과概念은分離되지안는表象으로서는同一한意識에種屬하는것이다그레意識의統一은直觀과概念을結合한다. 感覺의綜合에在한意識의同一性은直觀되는事物의形式에뺀아서統一되는表象과밑規定된直觀을生한다. 그렇기때미直觀은意識의綜合的統一에從屬한다. 그렇지만는意識의統一은同時에範疇의根據다.

이러한方法으로칸트는演繹의思想過程을說明한다 그렇고보니範疇는悟性和思惟로붙어生來한다. 그러나悟性の形式은意識의綜合的統一이여서그統一은同時에直觀인空間時間의必然的制約이다. 뺀아서意識의綜合的統一原理의結果로서의直觀形式과範疇와의關係에依하여演繹의先天的課題는解決되는것이고純粹認識의可能性과妥當성은解明되는것이다. 이方法이곧칸트에있어서의最高의方法인데經驗과實在의綜合의特性을意識의根源의綜合的同一性으로붙어誘導하는것은即是先驗的演繹의本質的收穫인것이다.

吾人は다시轉하여야어떠케해서範疇를定立하기에니르는가 또此範疇의演繹을하는效用을좀더細考하여보려한다. 칸트가最初에注目한材料는多樣的變化다繼起는分明히多樣을包含한것임으로時間中에多樣的變化와多樣的生起가有한것은吾人이的確히意識하고判斷하는것이다. 그러나칸트는萬若吾人이雜多한要素를思惟에서結合할수가없으면吾人は雜多를雜多로서意識할수없다고議論함으로써雜多를雜多로意識하라면吾人は三重의綜合을通過하여야만可能케되는것이다. 그것은即直觀에在한覺知의綜合과想像에在한再現의綜合과概念에在한再認識의綜合이다. 이것理即主觀的演繹이라는것이다. 如斯한綜合을經하여야雜多가統覺의先驗的統一에依하여意識된單一한意識中에統一되고마는것이다.

只今統覺의先驗的統一의證明에歸하여야單純히一言하면 吾人は上來에서임擬差統一이繼起的表象의多覺의意識으로붙어推論된다는意味를두어왔다. 어더던지칸트가말하는統覺의先驗的統一이對象의意識中에包含된事實을말하는것임은明瞭하다. 칸트는自己同一性은對象意識을包含하고對象意識은自己同一性을包含하였다고말한다. 그러면演繹의主되는題目은即自己와對象間的密接한關係다. 만약吾人이對象을意識한다는事實이自己同一性을證明하는것이면逆으로自己同一性은다만對象과意識에서例常할뿐이다그래서自己가同一한것처럼看做하는것은

다만綜合에對한關係에在하여서뿐이다. 칸트로보면統覺의先驗的統一은決고雜多를包含치아니한絶對的으로同一的인統一이다. 그럼으로吾人は認識된材料의雜多에對立하여서만그同一性を認識할수잇는것이다. 自己同一성과對象意識은全然相關的의여서相互를包含하는것이다. 쫓아서이二者는相離할수없는關係로다發覺하는것처럼된지라自己의完全한知識은客觀世界의完全한智識이없이는不可能하게될것이다. 다시詳述하면吾人以外觀의世界를推理하는心理的及論理的出發點이自然的客觀的에對하여論理的으로相觀하고心理的으로後起하는限에있어서 칸트는對象中에經驗的的自己를되려보낸다. 그리하여칸트는또自然的客官은勿論吾人の表象의嚴密한意識即經驗的的自我의意識까지도對象中에되려보낸다.

吾人は只今上述한演繹의結果가『類推』가운데에서豫想되는것을記憶해두어야한다. 即吾人は自此로吾人の論題인因果律에가장密接히關係하는管箏을論進하여야한다. 우에서吾人は先驗的演繹의主되는目的은可能的經驗의原則인範疇를說明하는것이라고말하였는데此目的으로붙어吾人の可爲할事業은可能的經驗의對象인現象에在한必然連絡의普遍性を證明하는것이다. 그리하여必然的連絡이範疇에在하여야는因果律이가장重要한것이다. 그럼으로써先驗的演繹의主目的은因果律의必然性の證明에關한것이다. 다시나아가서具體的으로그러면範疇의先驗者演繹은何處에그重點權災한가하면 此演繹이吾人の先天的인解釋形式으로서經驗을맨먼저可能케하는것 그리하여이可能케하는것에依하여思惟의主觀的的制約은客觀妥當性を얻는것을證明하는데잇는것이다.

칸트는如斯히範疇를說明할境遇에는 거의因果의範疇를끄내온다. 攄어서範疇의妥當성과有效性에對한實例도또한거지만因果律의領域으로붙어끄내온다. 只今칸트는原因概念을說明하여 『어떤A가반다시A로붙어어떤B가必然的으로또絶對的普遍的規則을準據하여繼起하는種類가되어야만한다는事實을꼭要求하는概念이다』(Reclam, 104頁 純粹理性批判)라하였다. 依하여原因概念은必然성과普遍성에依하여證期됨으로써必然성과普遍성은原因의概念經驗의產物되지만할만치完成하는것이다. 그래서普遍성과必然성이從屬하는悟性概念은經驗對象으로붙어서는아무리하야도生起치한는다. 그렇지만은悟性概念은經驗對象과一致한다. 攄어서모든範疇는必然的으로그리하여先天的으로經驗對象에關係한다. 이經驗對象은範疇에依하여서는一體로思惟할수잇는것이다. 그리하여此範疇를先天的으로經驗의可能性的制約으로서認識하기爲야範疇의先驗的演繹의原理는存立하는것이다.

여게서또吾人は純粹悟性概念은直觀에形式을與하고그래서그形式에依하여直觀은判斷이된다. 即吾人は『形而上學序說』의第二十章에在한有名한 『만약一光이뚝을찌이면뚝은더워진다』라는判斷을取하여보면이判斷은單純한知覺判斷

이지마는이知覺判斷으로붙어서 『一光이둠을더웁게한다』라는經驗判斷이出來한다고말하였다. 仔細히말하면一光과둠의漸溫하여지는것과의不變하는連續에對한觀察은經驗的으로주워진것이다. 그래서이觀察은一種의蓋然的判斷이라單只主觀的으로吾人이知覺한것을綜合하는것뿐이다. 그렇지만한客觀的인經驗判斷이要求된다면一時的連續의經驗的規則은한法則으로變하여지지안으면안되는것이고 또因果律의普遍的이고先天的인規則에從屬하지안으면안되는것이다. 太陽은그光明에依하여溫暖의原因이다. 지금까지의知覺이吾人에게가르침과같이A는B에先行할뿐만아니라B는當然히A로붙어生來치아니하면안되게처럼A는되여있지만안된다. 即結果는다만原因에次하여生할뿐만아니다必然的으로原因으로붙어生來하는것이다. 即知覺의主觀的結合으로붙어客觀的意味의經驗認識이出來하는것이다. 그렇기하여原因概念의可能性은客觀妥當的認識을可能케하는데서現來하는것이다. 그래서必然的이고普遍妥當的인客觀的인綜合判斷이되는것이다. 於是乎吾人은휴-口의생각을다시思考하여보자. 휴-口은어떠케하여悟性이自身中에는結合되지아니한概念을實地로對象에있어서는必然的으로結合되여있는것으로서思惟치아니하면아니되는가를說明해내지못한것이다. 換言하면휴-口은悟性自身이아마이概念을맨들고나아가서는如斯히맨드때로붙어서經驗의本源者가된다고思考하기까지는이르지못한것이다. 글머으로휴-口은概念을잘못經驗으로붙어誘導해온것이고 떨어져因果의必然性を主觀的에만妥當하는것이라고서그原因概念을習慣에서求한것이다. 그러나칸트는此主觀的必然성은거의虛偽的인것이라고論斷한個所가되인다.

吾人은上來에서純粹覺性概念 떨어져吾人の普遍的自然法則의概念이先天的本院이라는意味를말하였으나그概念의適用은全然經驗의範圍에制約되여있는것을注意하여야한다. 그럼으로서範疇의演繹으로붙어의칸트因果解釋에있어서는第一먼저거기에經驗的의要素가包含되여있는事實이結果하는것이다. 이것이即어떤所與의知覺으로붙어知覺의原因結果가先天的은아니고專혀經驗에依하여分明케되는것이다. 그런故로칸트에在하여야는因果聯關이習慣에서成立되는것이아니고綜合的特性을가지는데서成立되는것이다그러나經驗은個個의因果推理以上은아무것도吾人の게주는것이없다. 떨어져因果推理의形式은必然성과普遍性이라는特性 即우리가相次로生起하는經驗一般을原因結果의關係 밑에서解決한다는事實인데 이러한凡般은實로吾人の覺性의先天的의要素中制約되여있다. 이것이即原因結果에對한經驗의事實의結合은吾人の諸般概念에서完成되는結合과같이受容的인感性的의產物이아니고覺性的의自發性的의作用에基礎하는것이다. 그럼으로因果關係는그綜合的特性에不拘하고必然성普遍性이라는特性을得來하는것이다. 如斯히先驗的의演繹에依하면經驗만이吾人覺醒의綜合에對象과內容을줄수있는것임

으로 吾人의 範疇는 그 妥當性을 다만 經驗領域에서만 가지는 것이다. 吾人은 只今 演繹의 結果를 저칸트의 言을 引用하여 結末하여 보려 한다. 即 『모든 可能的知覺은 覺知의 綜合에 依存하고 다시 이 經驗的 綜合은 先驗的 綜合에 從하여 範疇에 存在함으로 모든 可能的知覺과 떨어져서 또한 經驗的 意識에 到達할 수 잇는 一切의 現象即 自然에 在한 모든 現象은 그 結合에 關해서는 範疇에 從屬하지 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미 (다만 自然一般으로서 看做된) 自然은 그 必然的 合法則性의 根源的 基礎로서의 範疇에 存在하는 것이다.』